

《사랑한다 우리말》 저자 장승욱 씨

퇴색했지만 윤기 있고 늡았지만 생명력 있는 '우리말' 보고서

다정한 연인과 돌담길을 걸다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만나면, 일단 어디든 차마 뭘로 달려가자. 그리고 넌지시 연인에게 "우리 지금 '베그' 이 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비를 잠시 피하여 그처기를 기다리는 일' 이라고 베그이의 뜻까지 풀어주면 금상첨화. 《사랑한다 우리말》의 저자 장승욱 씨와의 만남은 '베그'이 처럼, 이제는 잊혀져가는 정겨움을 새삼 되새기는 흐뭇한 만남이었다.

글 장동석 기자 | 사진 박선우 기자

장 승욱 씨는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에서 일했다. 그래서 더욱 우리말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할 거라고 기자는 지레짐작을 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랬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글쓰기를 업으로 삼아야 하니 나만의 재료가 있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어. 군대 제대 후 복학까지 여유가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사전을 모두 뒤진 것부터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이죠.”

우리말, 몰라서 못 쓰는 것일 뿐

그렇게 도서관에서 사전이란 사전은 모두 뒤적이며 ‘토박이말’을 골라냈다. 그렇게 작업한 것을 토대로 1998년 《한겨레말모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후 2006년에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를 선보였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사라져가는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더러 “대중성을 가미해서 독자들이 읽기 쉽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주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책이 바로 《사랑한다 우리말》이다. 여름내 3천여 개의 단어들을 붙잡고 뜻 모를 우리말만 잔뜩 늘어놓아 읽는 독자들이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소화제를 덧붙였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예화도 붙여 넣고, 낱말들이 쓰인 문학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수록했다. 이 책은 낱말 뜻을 풀이해 가면서, 그 낱말들이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남다르다.

장승욱 씨는 우리말이 ‘도사리’ 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익는 도중에 바람이나 병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도사리라고도 한다. “익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관심에서 떨어져서 떨어진 열매여서 더욱 마음이 간다”는 그에게 우리말은 작은 비바람에도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열매들처럼 애처롭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말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촌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실용적이지도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장승욱 씨의 생각은 다르다. “몰라서 못 쓰는 것일 뿐, 알아두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가치마저 높일 수 있다.

우리말 공부,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는 일

장승욱 씨는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身土不二), 몸과 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身言不二)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말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언어란 결국 ‘존재의 집’이며 ‘몸의 집’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집이기에 언어는 관계를 가지게 마련인데, 장승욱 씨는 “잘

모르던 관계를 발견해 가는 재미가 우리말 공부에 풍성하다”고 말한다. 관계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랑’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설가 성석제는 저자 장승욱을 일러 “우리말을 아득히 먼 세월 동안, 어쩌면 전생부터 사모해 왔고 소싯적부터 쉽 없이 주변을 서성거렸으며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 만나면 숨을 말고 꺼안고 어루만지고 품을 파고들고 하나가 되려고 하며 꿈속에서조차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 책을 두고는 “사랑의 기록”이라고 칭찬했다.

장승욱 씨는 요즘 우리말 중에서도 사물의 부분을 나타내는 말에 빠져 있다. 손가락 부분 부분의 이름을 아느냐는 질문에 기자는 흠칫 놀랐다. 그 놀라움이 무안으로 바뀌기 전에 그는 손가락에는 일곱 개 부분이 있고 각자의 이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손가락총, 술입, 술등, 술배, 술목, 술날, 술끝이 각각의 명칭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손가락 부분들 이름 아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할 요량이다. “사물 부분 부분의 이름까지 안다면, 사물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냐?”고. 하나의 사물에서 시작한 사랑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고, 다시 사람에게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그는 결국 사물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가진 셈이다.

“애인의 ‘아무개’라고 이름만 불러 그리워하는 것과 애인과 맞잡았던 손, 청초한 얼굴 등 애인의 하나하나를 그리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리움을 풍성하게 해 줄까요?”라고 되묻는 그는 “사물이 윤곽만 남고 자세한 부분과 그 의미는 지워지는 세상에서, 이 작은 시도들이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내보였다.

언젠간 희망대로 되지 않겠는가

“알아야 쓸 수 있으니, 알려주고 쓰게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죠. 언젠가는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모꼬지나 동아리처럼 20년 전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던 말들도 지금은 당당하게 그 의미를 되살려내고 있다. 장승욱 씨와 같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이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희망을 본다. 퇴색했지만 윤기 있고 낡았지만 생명력 있는 우리말을 되살리려는 그의 희망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봄직 하지 않겠는가. **한문**

